地理學論叢 제43호 (2004. 3)

중소 제조업체와 지역 내 일반은행 간 연계에 관한 연구 -전북 지역을 사례로-

이 지 은*

The linkage between SMEs and regional commercial bank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he case of Jeonbuk province

Lee, Ji-Eun

요약: 본 연구는 전북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와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에 있어 지방 기업과 지역 일반은행이 갖는 연계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북 지역의 중소업체는 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 수준이 낮으며 직접 금융 방식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의 조달을 주로 지역 내 일반은행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와 은행 사이에 교류되는 정보의 내용, 접촉 빈도, 교류 형태를 분석한 결과 업체와 지방 은행과의 연계가 더 긴밀하고 지역 자금은 지방 은행과 업체와의 정보연계가 존재하는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주시,익산시, 김제시는 지역 자금의 공급규모와 대부 조건에 있어 최상위지역으로 남원시, 김제시는 차상위지역, 기타 군 지역은 하위지역으로 존재한다. 전북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거래은행의 유형에 따라, 은행과 업체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한 연계가 형성되어 있는 가에 따라 자금 조달에 영향을 받으며 자금 공급 규모와 조건은 공간적으로 지역 위계를 형성하며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북 지역 업체와 일반은행 간의 정보 교류와 연계는 업체들의 자금조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방 중소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업체와 은행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자금의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자금 조달, 중소 제조업체, 지역 내 일반은행, 정보 교류, 연계, 지역 위계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SMEs in manufacturing industry and commercial banks in regional unit. Most manufacturing SMEs in Jeonbuk province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such as small business size and low level in technological standards. This phenomenon leads SMEs to depend on loanable funds of commercial banks for supply of money since their business conditions are not well-qualified enough to attract equity financing. Manufacturing SMEs in Jeonbuk are more closely connected with local banks considering relation with nationwide banks in depth of information content, frequency of contact, way of information interchange. A great part of loanable funds are concentrated on such places where firms have already built strong linkages with local banks. In additio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loanable funds are differently distributed according to regional hierarchy. Jeonju, Iksan, and Gunsan could be categorized as the most supervior region. Jeongeup, Namwon, and Kimje occupy next order and the remaining region, which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졸업

composed of various counties, takes inferior stand in Jeonbuk province. In conclusion, fund rasing functions of manufacturing SMEs in Jeonbuk province depend on type of transacting banks, information interchange with banks and linkages between chiefly dealing banks. The quantity, scale and quality of funds supply are unequal in regional perspective. Funds flow also shows regional hierarchy. To continue the growth of regional manufacturing SMEs in the future, supply of funds for regional firms should be more stable through strengthening linkages between firms and commercial banks of region.

Key Words: Fund Rasing, Manufacturing SMEs, Regional Commercial Banks, Information Interchange, Linkages, Regional Hierarchy.

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한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행해 온 총량 위주의 성장 정책과 정부에 의한 인위적 자원 배분으로 인해 성장을 위한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고 지방은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게다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요소인 고차 생산자 서비스 기능은 과도하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 경제 구조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지방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이 생산자 서비스 부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금융 부문으로의 물리적 접근과 연계, 원활한 정보 교류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금융기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도록하여 기업에 대한 자본의 공급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나 금융부문으로의 접근성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서울에 본사를 입지시키거나 본사의 기능을 하는 지사를 서울에 설립하여 금융 부문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는 주로 기업 본사의 입지는 기업 본사가 수행하고 있는 핵심기능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들의 입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에 의해 뒷받침된다.(신성일,1992; 임경숙,1995; 조순철,1994) 기존의 연구들은 금융 부문으로의 접근을 위해 본사 기능이 금융중심지로 집적하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지만 기업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금융 부문의 특성과 불확실성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소극적인 금융기관의 현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지방 기업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 간에 구체적인 정보연계를 통해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지방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기업과 금융기관 간에 형성되어 있는 연계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기업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고 지역 간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이 갖게 되는 특성을 고찰하였다. 성장을 위한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기업이 처한 현실은 지방기업의 특징을 결정하게 되며 지방기업의 특징은 금융기관과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과 금

융 기관 간의 연계에 선행하여 지방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나뉘어 지며 이들은 업무영역과 대출관행에 있어 차이가있다. 따라서 대출금의 규모, 금리, 상환 조건, 정보 교류를 위한 접촉빈도, 태도에서 업체와 은행 간 연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은행의 종류에 따라 연계의 내용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에 형성되는 연계가 공간적으로 낳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자금 배분량의 지역 차이가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연계특성과 관련되는지, 자금 배분의 조건이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연계 특성과 관련되는지 또한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연계는 지역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위계구조를 갖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전북 지역의 시, 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를 분석함에 있어 자금 수요자의 종류를 중소 제조업체로 자금 공급자의 종류는 일반은행(commercial bank)으로 한정하였다.

2) 연구방법

전북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의 금융거래 및 서비스 이용 행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가 있는 고창, 군산, 김제, 익산, 전주 과학 산업단지와 제 1, 2 단지, 완주 산업단지와 정읍 1, 2, 3 단지에서 415개의 표본을, 기타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333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총 748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8월 29일부터 8월 31사이에 1차 우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9월 16일부터 19일에 걸쳐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 전화 조사와 fax조사를 병행하였다. 2003년 9월 25일까지 총 76부를 회수할 수 있었으며 회수 응답률은 10.16% (748개 중 76개)였다.

이들 중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심층면담 조사를 병행하였다. 자금의 공급자인 은행 측에 대해서는 심층 면담조사와 은행 내부자료 조사를 통해 지역 기업과의 관계와 대출조건 및 대출금의 지역 별 할당 내역을 조사하였다. 은행의 심층 면담조사는 시중은행을 대표하는 K은행과 지방은행인 J은행을 각각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2. 지역적 차원에서 금융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금융과 지역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 경제학, 국제 금융학, 경제학, 지리학에서 이루어졌다. 지역 경제학에서는 통화의 공간적 차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간 이자율 차[1] 기금의 지역 간 혹은 지역적 흐름[2], 지역적 신용의 이용 행태[3]에 대해 연구해왔다. 국제 금융학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서는 지리적 차원의 이슈가 제기 되기 시작했고[4] 경제학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지리적 구조와 공간적 진화를 이론화하는데 있어

1) Faini, Galli and Giannini,1993; Hutchinson and Mckillop, 1990: Mckillop and Hutchinson, 1991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Carlino and Larg,1989; Moore and Hill 1982; Short and Nicholas,1981 등이 있다.
3) Alessandrini,1992,1994,1996: Amos,1992;Amos and Wingender,1993; Bias,1992; Chick,1993; Bias,1992; Chick,1993; Greenwald, and Stiglitz, 1993:Zazzoro:1997의 연구가 있다.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예로는 은행 업무와 신용 할당의 지리에 관한 연구가 있다.[5]

또 다른 예로는 금융 센터들의 성장과 경쟁에 관련된 연구가 있다.[6]

지리학 내에서는 경제적 경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금융과 통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David Harvey는 자본주의적 공간 경제의 위기 경향과 불평등한 발달과정에 있어 통화와 금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마르크스적 이론을 통해 지적해왔다.(Harvey,1982,1985,1989b)

한편, 은행, 벤처 캐피털, 주식 시장, 연기금[7]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금융서비스, 금융시장 등의 공간적 조직과 이들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한 국제금융센터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동학 관계에 대해 세계의 통화지리를 논리적으로 구성해내고 이들을 단위화하려는 시도도 있다. 금융집단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기관들의 문화와 관행을 구성해내고 단위화하는것도 여기에 포함된다.[8] 마지막으로 지역 금융의 흐름과 지역발달의 연계를 찾아내는 연구들이 있으며[9] 지역기업과 지역금융 간의 연계를 찾는다는 점에서 본 논문 역시 이러한 범주에 든다.

금융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금융의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고찰은 지역적 차원에서 금융의 흐름과 지역 발달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 할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행위의 지역적 차원에 대하여 지역 경제학자들은 화폐와 금융시장이 갖는 역할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역 간의 자본 이동은 완전하다고 전제해왔으며 지역 통화의 공급은 내생적이고 어떠한 실물 부분의 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Richardson(1973)은 그 동안 지역분석에서 금융의 차원이 제외되어 온 것은 지역 간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다고 전제하는 성장이론(Growth theory)의 영향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적 수준에서의 금융 연구는 지역이라는 소규모의 개방경제들로 구성된 세계적 금융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Richardson, 1973, p14)

지역적 차원에서 금융의 문제를 다룬 문헌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통화정책에 있어서 지역의 영향을 파악하는 시도이고 둘째는, 지역 금융의 변수와 지역금융시장 자체를 다루는 연구들이다. 후자에 해당하는 문헌들은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지역통화승수에 관한 연구와 기금의 지역 간 흐름, 지역 금융시장에 관한 연구가 있다.

지역금융시장을 다루는 연구들은 세부적으로

---

4) Budd and Whimster,1992; Cohen,1993; Eichengreen,1990; Eichengreen and Flandreau,1996; Laulajainen,1998; O'Brien,1992 등이 그러하다.

5) Dow,1987,1988,1990; Moore and Karaska and Hill,1985가 있다.

6) Porteous,1995

7)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Clark,1993b; Gentle,1993; Green,1993; Lee and Schmidt-Marwede,1993, Leyshon and Thrift,1989,1997; Lord,1987; Martin and Minns,1995; Mason and Harrison,1991 and 1995, O'hUallachain,1994; Tickell,1994; Thomson,1989

8) Clark,1997c; Corbridge, Martin and Thrift,1994, Hudson,1996; Leyshon and Thrift,1997; McDowell,1997; Roberts,1994 and 1995; Sassen,1991; Thrift,1994

9) Clark and Wrigly;1997b; Courlet and Soulage,1995; Schamp, Linge and Rogerson,1993

지역 간 이자율의 차를 다루는 연구와 지역의 신용이용도를 다루는 연구로 구분된다. 두 가지 연구경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간 이자율의 차를 다루는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의 사례에 관한 것이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접근법은 효율적 시장 접근법으로 Keleher(1979)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Keleher는 미국의 대출시장에서 지역 간 이자율의 차를 모델을 통해 추정함으로써 미국의 지역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과 지역 간 이자율의 차는 지역마다 금융자산에 대한 동질성이나 위험,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기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두 번째 접근법은 이자율의 지역 차가 있을 때 지역 간 통화의 흐름의 민감도를 검정 하는 연구인데, Cebula 와 Zaharoff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1950년~1971년의 기간 동안 미국의 지역 예금이 이자율의 차에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델을 통해 검증한 바 있다. (Cebula & Zaharoff,1974) 마지막 접근법은 지역 간 이자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탐구하는 것인데 지역간 이자율 차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 마지막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 간 이자율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은 다음의 5가지로 정리된다. 금융기관의 수와 집중도, 이자율의 상한선 등 시장 구조와 관련된 요인, 지역의 수요에 관련된 요인,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위험 요인, 거래비용의 지역 차, 중앙금융시장으로부터 거리[10] 이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설명은 지역마다 위험과 비용이 다르다는 것인데 예를들어, Henderson(1944)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미국에서의 대출이자율의 지역 간 차이는 위험요인 보다는 비용요인 때문임을 밝혀내었다. 한편 Edward(1964)는 지역 이자율과 지역금융시장의 집적 정도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중소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 이러한 연관 관계가 발견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Straszheim(1971)은 개인 혹은 중소 규모의 기업 수준에서 신용시장의 분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기업규모와 신용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러운 언급을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요인 이외의 서로 다른 요인들의 결합으로 지역 간 이자율의 차를 설명하고 있는 문헌도 있다.[11]

이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 간 이자율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지역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개인 혹은 중소규모 기업 수준에서 신용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언급된 문헌들이 모두 미국에 대한 사례 연구이므로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영국과 북아일랜드, 이탈리아에 대한 연구들[12]도 기업 규모에 따라 대부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의 신용이용도(regional credit availability)를 다루는 연구들이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의 신용이용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Roberts와 Fishkind(1979)는 Lösch

10) 중앙 금융 시장으로 부터의 거리는 개별 행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

11) 여기에는 위험, 거리, 수요 압박 요인을 이용하여 지역 저당 이자율의 차이를 설명한Schaff(1966)의 연구가 있다. 이에 대해 Wigner(1969)는 위험요인의 지역 간 차는 지역의 차별적 성장의 결과일 수 있으며 위험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12) 미국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Hutchionson&Mckillop (1990), Mckillop&Hutchionson (1990); D'amico et al.,(1990) Faini et al(1993)이 있다.

가 1954년에 발표한 '이자율의 공간적 Fluctuation'에 관한 연구에 고무받아 지역 신용시장의 분리를 가져오는 요인의 확인을 시도하여 지역 신용시장의 분리를 가져오는 세 가지 주된 요인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는 지역 행위자들의 정보 접근성이다. 지역 외부에서 지역 내부의 금융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지역 간 효율적인 재정거래를 저해한다면 그 결과는 신용시장에 있어서의 지역적 분리로 나타나게 된다. 정보 비용은 고립된 지역일수록 높을 것이므로 가장 고립된 지역이 신용시장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유동성, 만기, 위험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금융자산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인은 대체 관계에 있는 자산간의 비교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금융시장의 분리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세 번째로 지역금융시장의 분리를 가져오는 요인은 유동성선호와 위험회피에 대한 정도의 차이와 금융 자산에 대한 이자율 민감도 차이의 관계이다.

신용시장의 지역분리에 대해 보다 차별화된 접근법을 가진 연구로는[13] 새 케인즈 학파[14]의 신용할당이론[15] 을 지역적 차원에 연결시킨 연구들이 있다. 앞서 언급한 문헌들이 주로 신고전적 모델을 수정한 것들이라면 후자는 지역적 요소로 정보의 문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이들 문헌들은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로 인해 지역으로의 자본 이동이 적어지는지, 나아가서 비대칭적 정보가 금융자본과 지역신용의 배분에 있어서 왜곡을 가져오는지를 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신고전적 모델에 비해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지리적 제약과 정보제약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정보의 비대칭을 통해 신용 시장의 분리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지방의 자금이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점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단서가 된다. 신용시장에 있어서의 지역적 분리 때문에 대부를 확대하는 은행의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인 지방은행의 부(wealth)의 수준은 지역 신용할당을 설명하는 한 요소가 되므로 지방은행이 외부자 보다는 지방의 투자기회에 대해 정보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외부자 보다 낮은 비용으로 투자기회를 감시할 수 있어 지역 투자자들은 지방은행에 보다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따라 Samolik(1994)는 미국의 주 단위에서 경제행위의 수행력과 은행활동 조건 사이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한 실증모델을 개발하였는데 모델을 통해 검정한 결과 정보비용의 존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신용 제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건전한 지역에서는 정보비용의 존재가 신용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즉, 낙후지역 일수록 정

---

13) Samolik, 1989, 1991, 1994: Greenwald et al. 1993, and Faini et al. 1993등이 있다

14) 새 케인즈학파는 실업, 신용 할당, 경기변동 등의 현실적인 현상이 기존의 미시이론과 방법론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새 고전학파가 경쟁적인 시장구조와 신축적인 가격을 가정하여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반면 새 케인즈학파는 불완전경쟁시장과 수량조정, 가격 경직성을 내세워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정운찬,경제학원론,P587)

15)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출시장의 특수성과 가격 경직성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은행 대출시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금의 대출자인 은행은 균형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다 적은 양의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는데 이를 신용 할당이라 한다. (정운찬, 화폐와 금융시장,P440) 이는 주로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지역 중소기업이나 가계 대출자들을 신용시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보비용의 존재와 정보비대칭은 신용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16] (Samolik,1991;1994)

이처럼 새 케인지언들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신용할당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역금융기관이 더 이상 대부할 여력을 잃게 될 때는 외부지역의 금융기관에 의해 신용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대칭정보로 인해 신용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 외부 지역공급자의 신용제공이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신용할당이론을 통해 지역금융시장의 차별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그 핵심적 요소로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신용시장의 지리적 분리에 관한 문헌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밝힌 바대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각각의 특성은 지리적 제약 하에 정보비대칭의 문제에 깊이 관련이 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중은행 시스템의 주된 장점은 은행 업무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금융시장에서 고객 기업을 유치 하는 은행의 능력은 혁신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달려있다. 따라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전문화된 기술과 오퍼레이팅 구조는 지방의 광역화되어있지 않은 은행시스템으로는 제공하기 힘든 장점이 된다. 또한 지방은행에 비해 취급하는 상품이 다양하여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로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역시 시중은행의 매력이다.

반면에 지방은행은 그 지리적 구조로 인해, 지역경제 내에서의 제도에 보다 친숙하고 지역적 관행에 착근되어 있다. 이것은 시중은행으로서는 갖기 힘든 장점이다. 지방은행들의 정보우위는 역사적으로 발달되어온 그 지역 공동체만의 독특한 경험, 그 지역 사회, 문화적 환경에 친숙하고 밀착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은행 종사자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에 의해 직접적이고 깊이있는 지방기업가들에 대한 정보가 형성되는데 특히, 중소규모 기업체를 중심으로 경제적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지방은행과 지방기업가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깊이 있는 지식이 은행의 수익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Alessandrini,1994)

앞서 언급한 문헌들은 금융일반에 관한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다룬 연구들이었다면, 금융행위가 지역과 관련되어 지역의 성장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은 지리학내에서 금융중심지(financial center)에 대한 연구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금융의 본질을 지역적 차원에 연결시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금융기능과 서비스의 집적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이것은 금융중심지에 대해 기존연구들이 내리고 있는 정의를 통해 파악된다. 예를들어 Porteous(1995)는 다음과 같이 금융 중심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금융 중심지란 금융 중심지로서 성격을 특징짓

16) Samolyk는 1983년에서 1990년 사이의 자료를 토대로 주의 소득 성장률과 지역 신용 조건 사이의 관계를 검정했는데 지역 신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변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준비금의 실제 성장률, 대출되지 않은 대부금의 비율, 도산 기업의 부채, 국내 대부금의 실질 성장률, 상업 은행의 자본 적정성에 비한 순 소득의 비율. 대출되지 않은 대부금의 비율이 높거나 낮은 주에 대해 앞에 열거된 조건들의 차이와 관계를 각각 검정하였다.
Samolyk은 은행의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지역에 비해 은행대부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지방은행 섹터의 상황이 주 단위에서의 실질 소득 성장률을 보다 잘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Samolyk,1994, p259) 이러한 결론은 신용시장의 지역적 분리가 존재할 때 지방 은행의 잠재적인 힘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다.

는 고차의 금융기능과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Kerr(1965)는 금융 중심지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지표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첫째, 총 노동력 중 금융 분야에서 고용되고 있는 정도. 둘째, 도시 내에 있는 금융기관 본사의 자산(asset)의 규모. 셋째, 현금화가 가능한 요구불 예금의 비율. 넷째, 주식 교환에 대한 배당가치의 정도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자금의 공급자 측면만을 주목하고 있어 자금의 수요자측면이나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금융 중심지는 고차의 금융기능과 서비스가 단순히 집적하고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Kerr의 4가지 지표들은 그 지역의 잠재적 금융자산이 어느정도인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의 자본력은 단순히 금융자산의 양적 크기만으로 평가될 수 없고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와의 긴밀한 연계에 의해 이것이 실제 대출로 이어지고 대출액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에 비로소 그 의미가 실현된다.

따라서 금융 중심지로서의 상대적 중요도는 효과적인 금융 중개행위를 위해 지역 내외에 어느 정도의 정보연계를 갖추고 있는지, 실제 금융중개 행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력의 크기 뿐 아니라 자본력을 실행시킬 기능과 정보력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는 경제적 행위들의 입지를 집중하는 힘(centripetal force)과 분산하는 힘(centrifugal force)사이의 결과가 공간상에서 재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Krugman,1991a,1991b,1995)이러한 관점에서 Krugman(1991a,1991b,1995)은 금융 중심지의 형성과 진화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개념적frame을 제공하였다. Krugman은 금융 중심지를 형성하는 집중하는 힘과 분산하는 힘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금융 활동의 집적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이를 토대로 지역 간 자금 배분에 있어 특정 지역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Krugman에 의하면 경제적 행위의 공간적 집적을 가져오는 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 힘은 노동 시장의 외부성(externality)이다. 금융기관들은 매우 숙련된 고급 인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Pool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필요 인력의 적시 충원이 가능해지고 보다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 받게 된다. 한편 노동자들은 규모가 큰 노동력 Pool을 통해 보다 숙련된 기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힘은 중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다.

금융 기관들은 법률이나 회계와 같은특화된 중간 서비스의 수요자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의 원천에 보다 근접하여 입지함으로써 더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힘은 금융 중개자들이 특정한 공간에 집적하는 이유는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금융중개행위의 결과가 한 지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한다.

지역 간 자금 배분 차를 가져오는 이유는 금융 행위의 집적을 가져오는 세 번째 힘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 그 세 번째 힘은 '지식과 정보의 파급효과' 이다. 기관 사이의 지식과 국지적인 파급은 기관들의 집중을 불러오게 된다. 금융 분야는 어떤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광범위한 유형의 지식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분야이다. 이러한 지식은 그 지역에 대한 정보에 기반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금융활동의 입지와 이들의 중심지로의 집중에 있어서 정보집약적인 환경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금융기관들은 정보에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접근하며 정보의 흐름에 대한 접근을 극대화함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양 뿐 아니라 질도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금융 중심지 내의 개인간에 구축되는 국지적인 정보 네트워크는 정보의 급속한 확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Lund School의 지리학자들은 정보교환에 있어서 면대면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들에 의하면 면대면(face to face)접촉은 도시화(urbanization)의 힘으로 작용했다.(Tornqvist,1979) 결국, 금융 활동을 집적시키는 힘의 이면에는 국지적인 지역의 핵심 정보에 대한 수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한 지역의 금융활동은 정보의 흐름과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집중하게 되어 금융 중심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금융 중심지는 여러 배후지들로부터 생성된 실물부문의 정보와 교역에 관한 새로운 정보에 근접할 수 있는 지리적 잇점을 가진 지역에 형성되고 공간적으로 금융구조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형태를 띄는 것이 아니며[17]. 중심부에는 매우 발달된 금융기법을 가지고 있는 금융센터가 있고 배후지에는 지역의 경제적 성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행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다.

3. 전북 지역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의 현황과 특성

1) 전북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일반적 특성

전북지역의 제조업은 사업체수와 규모에 있어 매우 영세하며 업종 별 구성에 있어서도 기술집약적이기 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업종은 생산성과 경상이익률이 낮은데 그 이유는 이들 업종이 노동장비율에 비해 설비투자의 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이들 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하여 설비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나 기술투자가 미약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더불어 이들 업체들은 사업성과 기술력 면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데 이처럼 설비 투자의 효율이 낮고 사업성과 기술력이 낮다는 것이 업체들의 자금차입 조건에 영향을 주게되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시에 지불하는 이자 비용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전북의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업종 별 구성을 전국과 비교해보면 전북은 전국에 비해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 의복, 모피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율로 본 생산성은 전국은 38.8%p, 전북은 36.5%p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고 재무구조 관련지표를 통해 전북지역 제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2002년 말 기준으로 전북 지역의 제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1.7%p로 전국의 4.7%p 에 비해 매우 낮았다. 한편 부채비율은 154.4%p 로 전국 평균 135.4%p 보다 높았고 차입금 의존도 역시 전북은 38.9%p

17) 이것은 지역 금융 시장의 존재 가능성을 다룬 박원석(1997)의 논문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전국 평균은 31.7%p로 전국에 비해 높았으며 자기자본 비율은 39.3%p으로 전국의 42.5%p 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즉 전북 지역의 제조업은 수익률은 낮으며 부족한 자본을 차입을 통해 경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또한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은 11.5%로 전국 평균인 7.7%에 비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매출액을 금융 비용으로 나눈 금융 비용 부담률은 3.2%로 전국의 2.6%에 비해 높아 사업의 영세성에 비해 자본을 조달 받기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2) 지역 내 일반은행의 자금공급에 있어서의 문제점

전체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나 중소기업들의 양적인 증가가 질적인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그 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자금공급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들 중소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중도 매우 낮아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중소기업 협동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중소 제조업체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93년 이후 지속적

〈표-1〉 일반은행 대출 자금의 전북 내 지역 분포 와 비중

지역명	인구*(명)	중소업체수(수)	일반은행 대출자금(억원)**	인구대비 대출자금비중(%)	중소업체수대비 대출자금(%)	대출자금 지역 비중(%)
전주시	622,238	399	4,159.2	0.6	2.65	38.4
군산시	278,577	314	1,509.5	0.5	1.22	13.9
익산시	336,651	658	2,180.9	0.6	0.84	20.1
정읍시	152,574	286	626.6	0.4	0.55	5.8
남원시	103,783	168	457.1	0.3	0.68	4.2
김제시	116,211	322	452.9	0.1	0.35	4.2
완주군	84,327	195	108.3	0.1	0.14	1.0
진안군	31,359	42	185.6	0.5	1.13	1.7
무주군	29,254	28	97.3	0.3	0.9	0.9
장수군	30,126	27	130.1	0.4	1.33	1.2
임실군	37,605	58	128.7	0.3	0.57	1.2
순창군	34,691	78	144.3	0.4	0.46	1.3
고창군	74,227	69	320.7	0.4	1.2	3.0
부안군	74,877	113	74,877	0.4	0.75	3.0

자료 : 전북지역 경제통계연보, 2002, 전북지역 경제동향 2003,6, 한국은행 전북본부 토대로 재구성
주 : *2000년 인구 주택 총조사 **2002년 기준

으로 감소해 왔고 2000년에 그 비중은 0.47%에 불과 했다[18].

중소기업들의 사업의 영세성과 낮은 기술력의 주요한 원인은 일반은행들의 총 대출액에 있어서 중소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동안 꾸준히 감소해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총 대출액에 있어 중소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꾸준히 줄어 94년의 58%에서 2002년 6월에 42.5%에 불과했다. 이 중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실적은 총 대출액의 36%, 지방은행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실적은 총 대출액의 63.8%로 시중은행은 지방은행에 비해 중소업체 대출에 보다 소극적이다.

일반은행의 중소업체에 대한 소극적인 대출관행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중소업체의 자금조달에 있어 일반은행에의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자금수요에 비한 공급자금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한편, 일반은행의 총 원화 대출금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된 비율은 1998년 3월에 29.2%였으나 2002년 3월을 기준으로 37.1%에 달하였다. 또한 전북 지역 내에서 대출금액의 배분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일반 은행의 대출 자금의 전북 내 시,군 분포를 보면, 2002년 말을 기준으로 전주시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두번째가 익산시로 20.1%였고 세 번째는 군산시로 13.9%를 차지하여 이들 세 지역으로의 대출 금액이 전북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 지역 내에서 특정지역으로의 자금의 집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김제시와 남원시의 경우는 대출자금의 지역 비중은 같지만 중소업체 수에 비한 대출자금의 지역 비중은 남원시가 훨씬 높은 것으로 보아 자금의 공급에 있어 업체 수 뿐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지역 일반은행들은 타지역의 업체들에 비해 이 지역의 업체에 대해 차이가 나는 대출관행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자금 배분에 있어서 지역 차는 기업과 금융 기관과의 연계에 의해 형성된 정보비대칭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설을 전북 지역 중소업체들에 대한 설문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4. 전북지역 중소업체와 일반은행 간 연계특성과 연계의 지역 차

1) 중소업체와 주거래은행 간 관계

현재,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금융기관은 은행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나뉘어지고 은행금융기관에는 시중은행(조흥, 우리, 제일, 신한, 한미, 하나, 평화, 한국 외환 은행, 국민, 중소 기업 은행) 66개 지점, 지방 은행(전북은행) 68개 지점, 특수 은행(농, 수, 축협, 한국 산업은행) 32개 지점이 영업 중으로 전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일반은행 영업점의 수는 2003년 현재 총 178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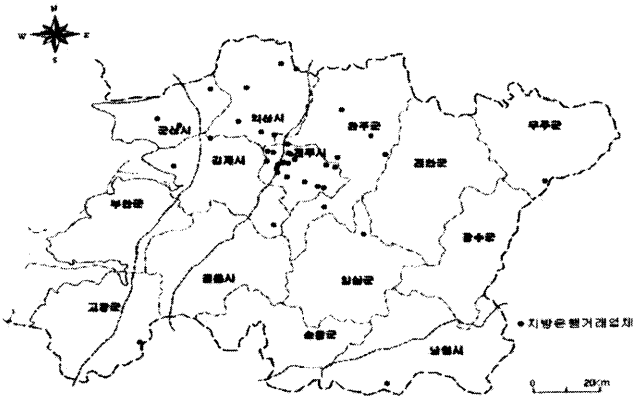
〈표-2〉설문응답 업체들의 주거래 은행의 종류

주거래 은행 종류	개	%
전북은행 지점	40	52.63
시중은행 지점	25	32.89
특수은행 및기타지역금융기관	11	14.47
계	76	100.0

자료 :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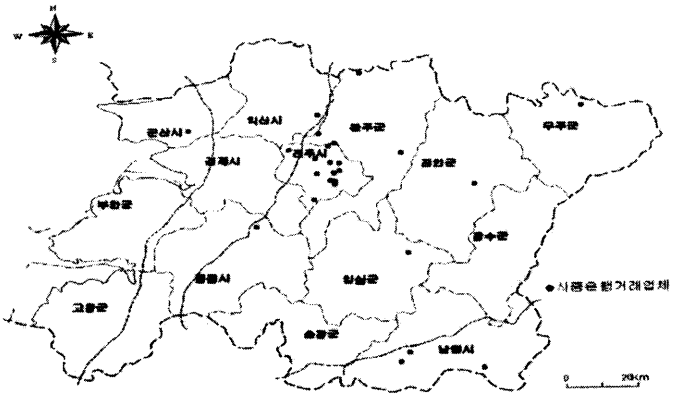
18) 중소 기업 협동 중앙회, 중소 기업 실태 보고, 각 년도 참고 (1993년~2000년)

〈그림-1〉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중소업체의 공간분포



자료 : 설문조사

〈그림-2〉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업체의 공간분포



자료 : 설문조사

달한다. 수적으로 보았을 때 전북지역 내에서 활동중인 금융기관 중에서 일반은행이 차지하는 범위는 일부에 국한되지만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일반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분석의 범위를 일반은행으로 제한한 것이다. 전북 지역에 분포하는 일반은행과 중소 제조업체들의 연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업체들을 대상으로 주거래은행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거래은행이 일반은행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85.52%로 일반은행과 주거래 관계를 가지는 업체의 비율이 압도적이었고 이중 전북은행 지점이 52.63%로 전북 지방의 유일한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이 시중은행의 32.89%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금은행중에서도 전북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자금 및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자금 및 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 원인을 살펴보자면 전북은행의 업무영역이 전북지역 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지역 기업에 대해 시중은행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점, 그러므로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기업과 보다 밀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방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19]을 들 수 있다. 이는 전북은행 여신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업체들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고 이들과 주된 연계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업체와 은행간의 연계를 형성하는 주된 요소이다. 설문조사 결과, 주거래은행 선정이유는 가깝고 이용이 편리하다(36.84%) 오래 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다(27.63%)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우가 좋다(15.79%) 순으로 이를 통해서 업체들은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이미 정보 연계가 있는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며 근거리내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2) 업체와 주거래 은행 간 물리적 거리, 서비스 질, 거래 지속 기간

설문조사의 결과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관계는 먼저, 물리적 거리에 영향을 받으며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는 자금공급자의 종류가 시중은행이냐, 지방은행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질은 보다 구체적으로 총 대출금액 중 실제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액의 비율 및, 대출이자, 상환기간 등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거래 은행의 종류에 분류한 대출액의 비율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시에, 총 차입금액의 80%이상을 대출받는 업체 수가 훨씬 많았다. 대출이자의 경우,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고율의 이자로 대출할 곳과 저율의 이자로 대출할 곳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상환기간의 경우,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장기상환하는 경우

19) 지방은행은 금융 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 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1967년에서 1971년 사이 설립된 10개 은행 체제가 1997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은 원칙적으로 1도 1은행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은행이 소재한 행정구역상의 도로 제한되다가 1989년에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을 5개 경제권으로 광역화하여 상대방은행의 동의하에 상호 원칙주의에 의해 동일 경제권내 지점을 설치가능하도록 하였고 서울과 광역시에 설치할 수 있는 지점 수에 대한 규제는 1998년 11월 폐지되었다.(우리나라의 금융제도,p70)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은 해당 은행의 소재지역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가 더 많았다. 거래 지속 기간에 있어서는 지방은행의 경우가 비교적 지속 기간이 짧고 시중은행의 경우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긴데, 이는 지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경영자와 사업성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경우에만 대부를 하는 시중은행들의 보수적 경영형태가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주거래은행과의 정보 교류의 내용과 수준

업체에 대한 정보의 문제는 은행에게는 업체에 대한 자금공급의 여부, 자금량과 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Alessandrini(1994)는 지방기업과의 정보연계에 있어서 지방은행에 잇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업체와 은행 간에 형성 교류되는 정보의 내용과 업체와 은행 간 정보연계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차이가 나며 각각의 대출 행태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업체와 은행 간에 형성 교류되는 '정보' 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사전조사의 결과를 통해 뒷받침된다. 분석 결과 접근성, 서비스 질, 거래지속 기간 등의 지표에 있어서 업체와 주거래은행 간 관계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업체와 은행사이의 정보 교류가 관련되고 있다. 즉, 이들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 깊이, 정보교환의 방법, 정보교환을 위한 접촉빈도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결과, 업체와 주거래 은행간에 교류되는 정보의 내용은 업체와 은행 간의 교류 정도에 따라 재무재표와 같이 객관적이고 수량적인 정보로부터 해당기업의 지역평판이나 경영자의 평판과 같은 주관적이고 질적인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교류되는 정보의 내용은 〈표-32〉와 같다.

〈표-3〉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교류정보의 내용

교류정보	우선되는것 개(%)	복수응답 개(%)
재무재표	55(72.37)	56(24.56)
경영자의 신용도	11(14.47)	52(22.81)
경영자의 사회적인지도	2(2.63)	10(4.39)
경영자의 성격	1(1.32)	6(2.63)
기업의 지역 평판	1(1.32)	10(4.39)
종업원과의 관계	0(0.00)	3(1.32)
해당기업의 고정 거래처 수	2(2.63)	17(7.46)
교류 정보 없다	3(3.95)	5(2.9)
응답 안 함	1(1.32)	63(27.63)
합계	76(100.00)	228(100.00)

자료 : 설문조사

업체와 은행 간의 정보 교류의 방법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는 것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정보 교류에 있어 아직은 물리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접적인 정보 교류 방법으로는 전화나 팩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고 e-mail을 통한 방법은 그다지 높은 비율을 차지 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북 지역 업체들의 정보화 수준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직간접 접촉에 비해 공식적인 모임이나 제3자를 통한 방법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적인 인맥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비율은 1.32%로 공식적인 모임에서의 정보교류인 5.2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접촉빈도는 주 1회 이상 접촉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46.05%로 가장 많았고 응답업체의 75% 이상은 월 1회 이상 접촉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다.

주거래은행의 종류에 따른 접촉빈도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둘 다 월 1회 이상의 빈도로 은행과 접촉하는 비율이 월1회 미만으로 접촉하는 비율보다 높았고 월 1회 미만으로 접촉한다는 비율은 지방은행 보다 시중은행에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중은행은 재무재표나 경영자 개인의 신용정보와 같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지역 업체들과 교류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형성되는 보다 주관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사적인 정보까지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교류 내용에 있어서의 거래 은행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정보력에 있어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보교환의 방법을 주거래은행 별로 분석해보면 해당업체가 직접 주거래은행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정보가 교환되는 경우는 시중은행이 40%, 지방은행이 37.5%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정보교류가 다소 상호적이다. 주거래은행의 영업 담당자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전화, 팩스, e-mail 등의 간접적인 접촉 수단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는 방법은 시중은행의 비율이 49%, 지방은행이 50%로 다소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의 지역 차

(1) 정보흐름의 지역간 불균형과 자금배분의 지역 차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가 지방은행과 지역업체 간 더 밀착적으로 나타나고 정보교류의 유형과 방법, 태도, 빈도 등을 분석한 결과 역시, 중소 제조업체와 지방은행과의 사이에 시중은행에 비해 우월적인 정보연계가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주거래 은행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된 정보가 자금의 지역 배분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 업체와 우월적 정보 연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금 흐름은 지방은행과의 거래가 많은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일수록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주거래 은행 별 업체 소재지와 전북지역의 지역 내 자금 분포를 비교해보면 전북 지역에서 자금의 배분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지역인데 이 지역은 다음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방은행과의 거래가 많은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이다. 즉, 자금배분의 지역적 차는 지방은행과 거래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입지와 관련이 있다.

〈표-4〉일반은행 대출 자금의 전북 내 시, 군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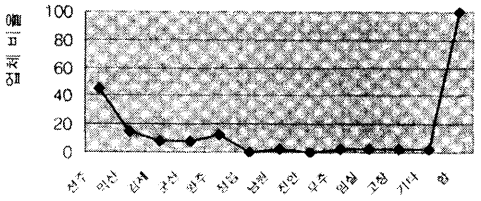
교류정보	우선되는것 개(%)	복수응답 개(%)
재무재표	55(72.37)	56(24.56)
경영자의 신용도	11(14.47)	52(22.81)
경영자의 사회적인지도	2(2.63)	10(4.39)
경영자의 성격	1(1.32)	6(2.63)
기업의 지역 평판	1(1.32)	10(4.39)
종업원과의 관계	0(0.00)	3(1.32)
해당기업의 고정 거래처 수	2(2.63)	17(7.46)
교류 정보 없다	3(3.95)	5(2.9)
응답 안 함	1(1.32)	63(27.63)
합계	76(100.00)	228(100.00)

자료 : 전북지역 경제통계연보, 전북지역 경제동향을 토대로 재구성

주 : 대출금의 지역 비중, 대출금의 인구대비 비중은 전주시(0.6), 군산시(0.5), 익산시(0.6) 기타 시 지역 평균(0.26) 군 지역 평균(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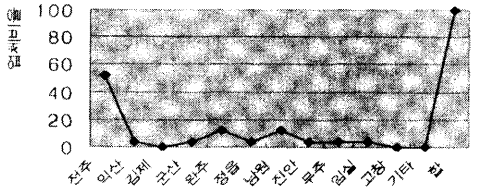
즉, 전북 지방에서 자금의 배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전주지역의 경우, 전북은행과 거래하는 비율이 27.7%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비율이 15.4%로 지방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는 업체들의 비율이 높았다. 익산 역시, 지방은행과 주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는9.2%, 시중은행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는 1.5%로 지방은행과의 거래 업체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군산의 경우도 4.6%는 지방은행과 1.5%는 시중은행과 주거래 관계에 있어 이

〈그림-3〉 지방은행과 주거래 관계를 가지는 업체들의 입지



자료 : 설문조사

〈그림-4〉 시중은행과 주거래 관계를 가지는 업체들의 입지



자료 : 설문조사

들 세 지역의 경우, 지방은행과의 거래 관계가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와는 반대로 정읍과 남원, 진안은 시중은행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들이 더 많았다.

전북 지역의 자금배분 현황을 보면 이들 지역은 비교적 자금의 배분에 있어 열위를 형성하는 지역으로 각각 총액의 5.8%, 4.2%, 1.7%를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금의 배분이 주로 이루어지는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에서 시중은행과는 차이가 나는 관계가 지방은행과 지역 중소업체와의 사이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 결과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와 기타 전북 내 시, 군, 구 지역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게 되고 전북지역 내에서 자금의 차등적 배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북지역 내의 자금배분은 업체가 어떠한 자금공급자를 선택하였는가, 선택된 자금공급자가 업체와 어떠한 연계를 맺고있는가, 업체와 자금공급자가 맺고있는 연계로부터 창출된 정보가 고차지와 저차지간에 정보비대칭을 발생시키는가에 따라 특정 지역에 차등적으로 배분된다고 볼 수 있다.

(2) 연계의 지역위계 (Regional Hierarchy)

전북지역 내에서 자금의 배분은 막연히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북지역 내에서 시, 군별로 위계구조를 가지고 차등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따라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를 반영하는 지표에 지역 내 위계구조가 나타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내용에 있어서의 순서에 따라 주거래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의 평균비율, 접촉 빈도,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거래지속기간 순으로 각각의 특징과 이들의 지역 위계(regional hierarchy)를 살피고자 한다.

주거래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액 비율이 전북지역 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응답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6개시 5개군 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가 대출금액의 비율에 있어 하나의 권역을 이루며 고차중심지를 형성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가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의 하위지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고창군은 앞의 6개 시의 하위지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는 대출금액의 비율에 있어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는 지역이며, 실제 대출되는 대출 금액의 비율 형태상, 이 지역은 소액 대출, 중간 규모액수의 대출, 고액대출의 3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지역이고 이는 이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의 규모와 업종이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하기 때문에 업체의 성격에 따라 여러 형태의

대출 금액의 비율이 공존하는 것으로, 이 지역이 전북지역 내의 최상위지역으로서 다양한 업종과 규모를 가진 업체들에 대한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출금액 비율의 세 가지 유형 중에 고액대출을 받는다고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간규모 액수, 마지막이 10%미만의 소액대출이었는데 고액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이 지역이 전북지역 내의 최상위 지역을 형성하긴 하지만 전북지방 자체의 낙후성과 영세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의 경우는 총 대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가 전북 지역 내 자금의 72.4%를 차지함에 비해 전북 지역 자금의 14.2%를 차지하여 지역 내 자금의 배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하위를 형성하는 지역임과 동시에 대출금액 비율의 형태에 있어서도 소액대출과 중간액수 대출에 비해 고액대출을 받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설문 응답업체 중 이 지역에 입지하면서 소액이나 중간규모의 대출을 받는다고 응답한 업체는 없었다.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가 전북지역 내의 최상위 지역으로서 업종과 규모에 있어서 다양한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반면 이들 지역은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의 하위지역으로 최상위지역에 비해 업체들의 업종이나 규모가 비교적 단일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들로 구성되어있는 지역으로 이들 업체들은 자금공급원이 다양하지 못하고 차입액의 대부분을 거래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어서 대출금액 비율에 있어서 고액대출을 받는 비율이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5개 군 지역은 전북자금의 7.8%를 분배받는 지역으로 총 대출금액의 차지 비율에 있어 가장 하위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소액대출이 15%, 중간 규모 대출이 35%, 고액대출이 50%로서 최상위지역과 차상위지역에 비해 소액대출을 받는 업체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이 지역의 업체들이 자금여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아예 지역금융시장으로부터 소외되어 소요 자금 중 10%미만의 극히 적은 양을 차입 받고 나머지는 사채나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조달받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극도로 영세한 업체들이 상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5개 군에서 10%미만의 소액대출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이들 지역이 전북 지역 내 자금 조달 권역에서 가장 하위 지역을 차지하며 사실상 지역금융시장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업체와 주거래 은행과의 접촉빈도 역시 주거래 은행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위계가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전북 시, 군 별 주거래 은행과의 정보 접촉빈도를 조사한 결과 전북 지역은 위계구조에 따라 3지역으로 재분류된다. 주거래 은행과의 접촉 빈도에 있어 최상위지역은 위계가 낮은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한 정보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하위지역과 차상위지역을 비교해보면 하위지역은 차상위지역에 비해 정보접촉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대출이자율이나 금액의 상환기간에서 하위지역이 상위지역에 상당하는 유리한 조건을 갖지 못한 점을 볼 때, 정보교류를 위한 접촉빈도에서 차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의 순위역전을 통해 하위지역 업체들은 정보교류를 위해 들여야하는 노력이 상위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업체와 자금공급자간의 연계에 따른 대출이자율의 분포에 지역적 위계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시, 군 별 대출이자율의 분포를 지리적 위계구조에 따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역시 대부분의 업체들의 이자율은 이자율 5%~8%에 몰려 있으므로 이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을 살펴보면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자율 3%미만의 가장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업체들은 최상위 지역에만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이자율 5%이하의 비교적 적은 이자를 부담하는 업체들은 역시 19%로 최상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상위지역은 19%, 차상위지역 0%, 하위지역은 16% [20] 를 차지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이자율 10%이상의 최고 수준의 이자율을 감당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하위 지역에만 존재하여 은행들이 하위 지역의 업체에 대한 위험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업체들의 영세성에 비해 무리한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어 향후 하위 지역 업체들이 지역 금융시장으로부터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8%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부담하는 업체 역시 최고 수준의 이자율을 부담하는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하위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상위지역은 10.4%, 차상위지역은 0%, 하위지역은 15.8%의 비율을 나타낸다.

대출금액의 상환기간은 대출이자율과 더불어 자금의 수요자들이 서비스의 질로서 주로 고려하는 사항이다. 대출이자율이 지역적 위계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하위 지역에서 고율의 이자율이, 상위지역에서 저율의 이자율이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대출금액의 상환기간에 있어서도 지역적 위계구조에 따라 대출금액의 상환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의 중기자금을 대출받는 업체 37개 중 최상위지역, 차상위지역, 하위지역에 각각 73%, 5.4%, 21%가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에 응한 업체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자금은 최상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대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출자금의 상환 능력에 있어 최상위지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금의 상환 기간을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나누어 보면 자금 상환 능력에 있어 최상위 지역의 우위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상위지역은 자금을 대출받는 업체의 81%가 상환기간 5년 미만의 자금을 차입하고 있어 대다수의 업체가 5년 안에 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

---

20) 차 상위지역에서 이자율 5%미만으로 대출 받는다고 응답한 업체는 없었는데 이는 차 상위 지역에 입지한 업체들의 성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차상위 지역의 업체들은 이자율 5%~8%로 대출 받는 다고 응답한 업체가 75%로 여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사업성과 규모가 중간수준인 업체들이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차상위 지역으로서의 단위 지역 설정이 적절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은행 심층 인터뷰의 결과 이자율 5%~8%는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이자율 수준으로 업체의 사업성과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 판단되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 수준에서 대출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보다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업체에 대한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이보다 이자율이 낮은 경우는 장기간의 지속관계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였거나 은행들이 사업성과 규모에 있어 업체가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상위 지역에 이자율 3%미만을 부담하는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반해 하위 지역에는 이자율 3% 미만인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업체들이 특별히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장기간의 지속관계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은행들이 저율의 이자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대출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신용 할당의 형태가 이 지역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신용 할당에 관해서는 2장에서 설명하였다.)

입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차 상위 지역은 5년 이내에 자금을 상환한다고 응답한 업체와 5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가진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같게 나타났다. 한편, 하위 지역은 5년 이상의 장기로 상환한다고 응답한 업체 총 12개 중 41.6%인 5개 업체가 5년 이상의 장기 상환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타 지역에 비해 장기로 자금을 차입 받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자율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업체의 영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은행들은 총 여신 중 비교적 적은 부분을 장기저리의 조건으로 하위 지역의 업체들에게 대부하여 위험을 줄이는 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체와 은행 간 거래지속기간의 지역위계는 최상위지역은 거래 기간 4년 미만의 비교적 거래기간이 짧은 업체가 48.57%를 차지하였고 거래 기간이 4년 이상인 업체는 37.1% 를 차지하여 거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업체가 긴 업체들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방은행이 업체와의 거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 그리고 최상위지역의 업체들이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과 같은 논리에서 이해된다. 즉, 최상위지역은 지방은행과의 정보연계가 높고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거래지속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최상위지역의 업체일수록 주거래은행과의 거래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업체들이 많아진다.

한편 차상위지역은 거래기간이 4년 미만인 업체가 42.8% 거래기간이 4년 이상인 업체가 28.5%로 역시 거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업체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지역은 거래 기간이 4년 미만인 업체가 55.5%였고 거래기간이 4년 이상인 업체가 80%를 차지하여 거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업체의 비중이 훨씬 많았다. 즉, 거래 지속기간이 4년 미만인 업체들의 수가 4년 이상인 업체들의 수보다 많은 것은 전북지역 전체의 특성이므로 최상위지역과 차상위지역에서도 역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거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업체가 거래 기간이 긴 업체에 비해 많아서 이러한 경향이 위계구조와 관련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래 기간이 4년 이상인 업체는 상대적으로는 하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지역에서 비교적 장기의 거래지속기간을 가지는 업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하위지역 업체들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속적 거래 관계에 의존하여 자금을 차입 받고 있고 자금의 공급자에 대한 선택을 바꾸는데 제약이 있다는 것, 자금의 공급자에 대한 선택을 바꾸는데 있어 상위 지역의 업체들에 비해 하위지역 업체들의 정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금 조달 기능을 중심으로 전북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전북지역의 자금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는 지역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정보중심지와 배후지간, 자금 조달을 위해 요청되는 정보의 흐름에 있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보흐름의 문제점은 배후지의 자금 수요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는 데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식적 지역정보기관의 설립을 통해 금융 활동의 참여자들에 대한 지역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 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이들이 자유롭게 만나 서로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논문은 전북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자금 수요자인 중소 제조업체의 특성과 자금 공급자인 일반은행의 특성,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의 특성 그리고 연계의 지역위계를 분석하여 기업과 은행과의 연계망이 지역 공간 내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북지역의 중소업체들은 사업체 수와 규모, 기술력에 있어 소규모이고 영세하며 기술력이 낮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 금융기관 중 일반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직접 금융방식을 통해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없는 전북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일반은행은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의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이들에 대한 중소 제조업체의 의존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기업과 은행 간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전제되는 양자 간 정보는 기업과 은행의 연계에 따라 거래은행의 종류나 지역 별로 차등적으로 흐르며 그 결과 전북지역 내의 자금은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업체들의 주거래은행은 대부분 일반은행에 해당하고 있고 일반은행 중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업체들의 주거래 은행의 선정기준은 접근비용의 저렴함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구축된 신뢰,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등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기준들에 지방은행의 조건이 더 잘 부합하는 지를 살펴본 결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이러한 조건들을 더 만족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층인터뷰의 결과 지방은행과의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시중은행에 비해 도내 지점망의 체계를 잘 갖추고있는 지방은행의 특성을 매력으로 꼽았다. 이것은 비용에 비한 물리적 접근성 면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 잇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은 대출금액 규모, 금리, 상환 조건 등이 지방은행과의 거래시와 시중은행과의 거래시에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었다. 대출금의 규모에 있어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들은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들에 비해 대출금액의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자율에 있어서는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들은 업체에 대한 정보와 평가가 이자율의 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위험도가 높은 업체에게는 고율의 이자율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업체에는 저율의 이자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지역 업체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성과 위험도가 이자율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지방은행의 경우 고율과 저율의 이자율로 대부 받는 업체들이 확실히 구분되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에게 중간 수준의 이자율로 대부하고 있었다.

상환기간에 있어서는 1년이상 3년 미만의 조건으로 대출받는 업체가 많았는데 장기자금의 경우에는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래지속기간 면에서, 전북지역의 업체들은 10년 이상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갖는 업체들과 최근 3~4년 사이 거래를 시작한 업체들로 양분된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에 비해 최근 3~4년 사이 거래를 시작한 업체의 비중이 높았다. 지방은행에 비해 시중은행들은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기

보다는 기존 거래 관계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는 신규 기업인 경우 시중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반영한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업체들의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을 보다 만족시키는 이유는 은행과 업체의 정보연계의 수준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정보연계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다음의 세가지 기준에서 검증되고 있다.

첫째, 지방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경영자의 성격, 기업의 사회적 인지도 및 평판과 같은 주관적이고 질적인 정보의 교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의 수집에 비용이 들고 상대적으로 수집이 어려운 정보이고 정보수집에 있어 업체와의 지속적 교류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지역 내 사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유리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 정보 교류를 위한 접촉 빈도에 있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업체와의 접촉 빈도가 좀더 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와의 잦은 접촉을 통해서 지방은행은 업체에 대한 세부적 지식을 개선해나감으로써 변제에 대한 위험에 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셋째, 정보교류에 있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업체와의 상호 교류가 보다 활발하다. 즉,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에 비해 주거래은행의 담당자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전화, 팩스, e-mail을 통해 업체와 은행 간 정보교환에 상호적인 흐름이 존재하는 정보 교환의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지방은행에 비해 해당 업체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대출에 대한 정보를 얻게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의 흐름이 상호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전북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과 보다 밀착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밀착적인 연계의 주된 이유는 지방은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은행들의 태도와 은행과 업체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의 흐름이 지방은행과 지역업체 사이에서 보다 상호적이고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전북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와 일반은행과의 연계에 있어서의 지방은행 우위라는 특징은 지역 자금의 차등적인 배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전북지역 자금의 흐름을 살펴 본 결과 지방은행과 업체와의 우월적인 정보연계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배분되는 자금의 규모 뿐 아니라 대출조건에 있어서도 전북지역 내 시, 군별 위계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전북지역에서 전주시와 익산시 그리고 군산시는 지역 자금의 규모와 대부조건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전북의 금융 중심지로 볼 수 있다. 또한 남원시와 김제시, 정읍시는 전북지역의 차상위지역으로 존재하고 기타 군지역은 기업금융에 있어 전북 지역의 하위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업체들은 자금 배분량이나 대부조건에 있어서 상위지역에 비해 차등적인 지위를 가진다. 지역 자금의 업체로의 공급 규모와 조건은 지역위계를 형성하며 전북지역 내에서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업체와 은행 간 연계의 공간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업체와 일반은행과의 정보 연계는 자금의 지역별 배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본 연구는 지역 중소제조업

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업체와 은행 간 정보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분석의 대상인 지역금융기관이 일반은행에 한정되어 있다. 3장과 4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은행이 지역자금의 공급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자금의 공급자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다. 게다가 80년대 이후 금융권의 변화로 인해 지역 금융시장에서 비 은행금융기관의 역할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비은행금융기관과 사채시장 등 일반은행을 넘어서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규모 뿐 아니라 동종 업종의 업체로 선정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료 제공의 의사를 보이는 업체가 한정적이어서 업종까지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분석 자료의 수집 방법에 있어서의 한계이다. 은행과 업체와의 연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사용된 자료들은 대부분 업체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로부터 구득하였으므로 응답에 있어 정확도를 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주관적인 자료에 근거하게 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을 통해 업체에 대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원석, 1997, "한국 금융 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관한 연구: 지역금융시장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검토",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신성일, 1992, "제조업 본사와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연계-수도권 지역을 사례로", 지리학 논총, 제19호 pp 45-68.

임경숙, 1995, "서울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산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업무 연계에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순철, 1994, "서울시 생산자 서비스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삼옥, 1999, 현대경제지리학, 대우학술총서 446, 아르케.

박삼옥 주성재 남기범 황주성, 1998, 경제 구조조정과 산업공간의 변화, 한울 아카데미.

전북지역 경제통계연보, 2002,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지역 경제동향, 2003,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1999,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기업금융편람, 1996년, 대한상공회의소.

ALESSANDRINI, P. Ed.,1994, La Banca in un sistema Locale di Piccole e Midie Impresse. Bologna: IL Mulino.Economics, 26, 20-9.

CEBULA R.J. and ZAHAROFF M., 1974, Interregional capital transfers and interest rate differentials: an empirical note, Ann.Reg.Sci.8, 87-94.

KERR,D, 1965, 'Some Aspects of the Geography of Finance in Canada' , Canadian Geographer ,9,4.175-92.

KELEHER R.E.,1977, Fundamental determinants of credit volume: a survey and regional application. technical Papers.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Atlanta. GA.

KELEHER R.E.,1979, Regional credit market integration: a survey and empirical examination. technical Papers.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Atlanta. GA.

KRUGMAN, P., 1991a, The Geography of Trade. Cambridge, MA: MIT Press.

KRUGMAN, P., 1991b,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 484-99.

KRUGMAN,P.,1995, Development, Geography and Economics. cambridge,MA:MIT Press.

LÖSCH A., 1954, The Economics of Location. Yale University Press.

PORTEOUS, D.J., 1995, The Geography of Finance: Spatial Dimension of intermediary Behavior. Aldershot: Avebury.

RICHARDSON, H.W., 1973, Regional Growth Theory. London: Macmillan.

ROBERTS R.B and FISHIKIND H., 1979, 'The Role of Monetary Forces in Regional Economic Activity: AN Econometric Analysis', Journal of Regional Science,19,1,15-29.

SAMOLYK K.A., 1989, The role of banks in influencing regional flows of funds, Working Paper 8914.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SAMOLYK K.A., 1991, A regional perspective on the credit view. Fed. Res. Bank of Cleveland.

SAMOLYK K.A.,1994, Banking conditions and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evidence of a regional credit channel. J. Monetary Econ.34, 259-78.

STRAZHEIM M.R. 1971, AN introduction and overview of regional money and capital markets, in KAIN J.F. and MEYER J.(Eds) Essays in Regional Economics. Ha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OXFORD, Blackwell.